

##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1:1-11

담임목사님과 선교팀이 오늘까지 멕시코칼리 선교집회를 진행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이번에 복음에 눈 뜬 제자가 나올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멕시코 뿐 아니라 멕시코, 남미에 복음운동이 시작될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요, 전도라는 영어단어 Evangelism은 복음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인 '유양겔리온'에서 온 것입니다. 유양겔리온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뭐냐? 선교라는 영어단어 Mission은 라틴어 Mitto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Mitto라는 단어는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하는데, 이 전도를 할 사람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누군가를 보내야 하죠. 그래서 복음을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할 누군가가 보낸다는 의미에서 Mi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전도와 선교는 동일한 것인데, 전도하는것인데,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선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선교헌금을 모아서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는 본질상 교회 자체가 선교를 위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인턴십을 하러 온 청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려고 미국에 온것인데, 이미 20대 중반이였습니다. 제가 카페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이 복음을 전했거나 교회에 가자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영접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도 보면, 일단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전에 부부생활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강사님이 했던 말씀 중에 부부사이에도 항상 같이 살면서 왜 저 사람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하면서 섭섭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아무리 부부사이에도 말 안하면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스컴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한다고 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요, **롬10:13-14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리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참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우리들은 지금 나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1장을 시작 하면서 사도 바울은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 빌립보교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착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그 앞절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빌립보교인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복음에 참여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여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척이 된 교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진 교회였고, 나중에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에 바울에게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바울이 로마에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돕게 하려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는 길에 병이 들었습니다. 거의 죽기직 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자기도 생활해야 되고 바울도 챙겨야 하는데, 그렇게 할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바울에게도, 또 빌립보 교회에도 서로가 다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된 것이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 오히려 돕지를 못하게 되고 짐이 된 처지가 된 것이고, 바울 입장에서는 어쩔거나 자기를 도우려고 왔다가 그렇게 되니 서로에게 염려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서 그를 다시 빌립보교회로 돌려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후원에는 실패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편에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보편적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큰 선교냐 하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선교를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처음 안디옥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쓸 것을 준비해줬지만,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대단한 선교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돕는 것, 이런 마음이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축복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축복을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축복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았고,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역시 우리 교회와 각 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또 나의 삶이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진리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내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을 이 비밀은 단지 선교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상황속에 적용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임을 믿습니다. 오늘 혹시 가정 안에서, 혹은 단체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이 들었거나, 원치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말씀을 담으로 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1. 마음을 같이 하라.

사람은 혼자 살아갈수 없기 때문에 늘 누군가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가족들과 같이 살아가고 교회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 동료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잘되는 집은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져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마음이 딱 뭉쳐지면 잘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무언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다못해 은행강도를 한다고 해도 한 팀이 마음이 같아야 성공하는 거지,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버리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마음이 무엇인가 정의하는 것이 있는가 하여 여러곳을 찾아봤는데, 온갖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한가지로 딱 정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면의 공간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본능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하는 말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학문의 영역에 따라서 다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한 정의를 내어 놓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성경에서는 뭐라 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레바브)'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구약에만 850번 정도 쓰였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는 만큼 성경에도 그 의미가 다양하게 쓰였지만, 그 모든 것을 엮을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에게는 결사량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외모, 성격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결사량과 반대되는 개념인 속사람을 지칭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내 외면을 보고 아 저사람이 누구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과 함께 떠오르는 모든 이미지들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음하고 감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도 세상 모든 일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모든 사람의 영적인 기능이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을 즐거운 마음,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사악한 마음등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느냐?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내 마음이 어떨지를 알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될 때에, 이 마음이 서로 소통되지 않고 합해지지 않을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도 사실은 바울의 선교를 도왔지만 그것을 지속할수 없을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도덕폐기론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도덕이 뭐가 필요하나 하면서 맘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자기 주장이 세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과가 이 교회 안에 다툼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아무 일에도 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보편적으로 싸우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라는 두 여성 리더가 있었는데, 이들이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지도자들이 싸우면 되나? 당장 서로 화해하고 기도하세요, 라고 할 것 같은데,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은 “싸우지 말아라”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인간관계든,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권면을 할수도 있고, 교제할수도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기에 먼저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들의 마음을 깨드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떨때는 너무나 당연한 이유를 갖게 만들기도 하고, 어떨때는 큰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부부든 기관이든 교회든 한 마음이 되지 못할때에는 서로에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왜 저렇게 하지? 지금 저런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잘되자고 하는 일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 2.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안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내가 맞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것 같고,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오히려 내가 맞지 하나님이 맞는 것 같지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는 하나님인데도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죽기를 결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종과 순종은 다른 것입니다. 복종은 나는 생각이 다르지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고통도 받으시고 두려움도 느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날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신 희생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하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셨냐는 것이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하겠죠.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짜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을 막는 것들 중에 십자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어떻게 나는 생각이 어떻게 해도, 이 십자가를 지는것만 하겠습니까?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느껴지면 할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에, 그리고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였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담임목사와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마음이 되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서로 양보하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깬 것은 하나님과의 한 마음을 깨뜨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한 마음이 깨져버리면 지금 아담과 하와가 사이 좋아도 그거 깨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담임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 소원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역자들과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든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말씀을 듣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것두요, 그냥 귀로 들어서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감동이 될 때 깊이 오래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잖아요? 잘 안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듣게 되면 그게 마음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때부터는 나 안에서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사실 이미 어려본 안에서 다른 인생이 시작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겉모양이 다른 인생이 아니라 같은 똑같은데, 속은 역전된 인생입니다. 이면계약이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성공하려고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인 인생, 그것이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일부러 낮아지는 인생.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남을 더 낮게 여기려는 인생, 이것이 진짜 능력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되면, 교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각자도 반드시 살아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마음들, 불만들, 다 내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너희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라고 하면서 겸손하라,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의 일처럼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겸손하고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는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가 있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올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볼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일이라도 예수님은 유일하고 완전한 답이 되십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외칠수 있다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진짜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사단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자기 발로 도망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어 갈수 있는 교회와 개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